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1월 강한 미 일자리 성장, 2월엔 둔화할 듯

[미국 금융]

- CNBC: 미 중소득층 투자 더 늘어났다
- Bloomberg: 모건 스탠리 “중등 위기, 시장 흔들지 않을 듯”
- Bloomberg: 중동 전쟁으로 국채 하락, 오일/달러 상승

[물류]

- CNBC: 호르무즈 해협 등 무역로 장기 차질 우려

[중동 전쟁]

- Bloomberg: 트럼프 “대 이란 공격 수주간 계속된다”

[무역 전쟁]

- Bloomberg: 미 농부들, “트럼프 10% 새 관세, 또다른 우려”

[오일]

- YahooFinance: 중동 및 호르무즈 사태로 오일, 80불 돌파

[글로벌 경제]

- WSJ: 2월 한국 수출 규모 전년 대비 29% 상승

[인공지능]

- CNNBusiness: AI로 메모리 수요 급증하면서 스마트폰 크게 올라

[미국 경제]

Bloomberg: US Job Growth Seen Moderating After Robust Janu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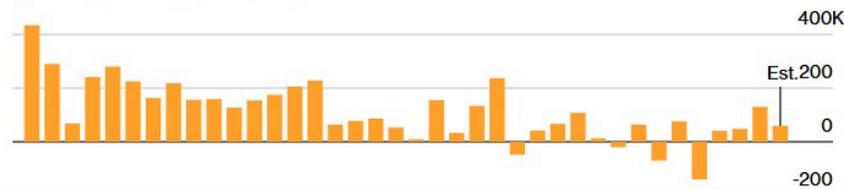
1월 강한 미 일자리 성장, 2월엔 둔화할 듯

- 미국의 1월 고용 증가세는 1년 만에 가장 강했던 기록을 보였지만, 2월에는 다소 둔화해 보다 완만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 즉, 이코노미스트들은 2월 한 달 동안 6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초에 늘어난 일자리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번 주 금요일 발표를 앞두고 실시된 Bloomberg 설문조사의 중간 수치다.
- 실업률은 4.3%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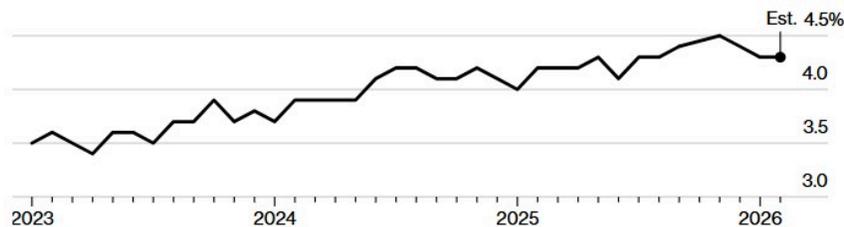
US Job Growth to Moderate After Robust January Hiring Pace

Economists see February payrolls rising 60,000 and a steady jobless rate

Change in total payrolls (MoM)



Unemployment rate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survey of economists

기사

[미국 금융]

CNBC: More low- and middle-income Americans are investing, report finds. Here's why

미 중소득층 투자 더 늘어났다

- 많은 미 소비자들이 일상 생활비 상승 부담을 느끼지만, 저소득 및 중간 소득층의 투자 참여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BlackRock Foundation 등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저소득 및 중간 소득 투자자 수는 2.7배, 즉 167% 증가했다.
- 그 기간에 이들의 투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고, 코로나19 경기부양금으로 추가 현금이 지급되면서 이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 Commonwealth의 CEO인 Timothy Flacke는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기사

Bloomberg: Morgan Stanley's Wilson Says Iran Unlikely to Dent Bullish View

모건 스탠리 “중동 위기, 시장 흔들지 않을 듯”

- 모건스탠리는 중동 위기로 오일 가격이 급히 지속적으로 인상되지 않는 한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정학적 리스크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주식 변동성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과거 유사한 지정학적 사건 이후에 S&P 500 지수의 평균 성과를 근거로 이같이 예상했다.
- 유가가 급등해 급등한 가격을 유지하지 않는 한 향후 6개월과 1년 동안 주식의 긍정적인 전망을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기사

Bloomberg: Stocks Slump as War in Iran Lifts Oil and Dollar 중동 전쟁으로 국채 하락, 오일/달러 상승

- 월가에서는 인플레이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했고,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유가가 급등하자 금리 인하 기대도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달러와 금값은 상승했고, 주식은 하락세를 보이다 하락 폭을 상쇄했다.
- 국채에 부담을 준 또 다른 요인은 제조업 지표가 확장세를 보였고, 투입재 가격이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0월 이후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했다.
- 한편 S&P 500 지수는 1% 이상 하락했으나 만회했다. 반면 항공주와 여행주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기사

[물류]

CNBC: The Strait of Hormuz crisis explained: What it means for global shipping 호르무즈 해협 등 무역로 장기 차질 우려

호르무즈 해협 등 무역로 장기 차질 우려

-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해협 등 주요 해상 무역로의 운항 장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컨테이너 선사들은 주말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중단하고, 선박을 아프리카 남단으로 우회시키고 있다.
- 덴마크 선사 Maersk는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당분간 중단하며, 아라비아만 항구를 운항하는 서비스는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과 이란 사이에 위치한 세계 주요 석유 통로로, 2023년 하루 평균 2천9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하며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했다.

기사

[중동 전쟁]

Bloomberg: Trump Says Iran Attacks May Last Weeks With Tehran Defiant

트럼프 “대 이란 공격 수주간 계속된다”

-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폭격 작전이 수주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이란 지도자들에게 항복을 촉구했다.
- 이번 분쟁으로 중동 전역에 혼란이 발생했으며,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미치면서 유가가 급등했다.
- 이란 국가 안보 책임자인 Ali Larijan는 ‘오만을 통한 중재 역할로 미국 관리들과 자신이 접촉했다는 보도에 관련’ 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사

[무역 전쟁]

Bloomberg: US Farmers See New Trump Tariffs as Yet Another Round of Instability

미 농부들, “트럼프 10% 새 관세, 또다른 우려”

- 미국 농부들은 트럼프의 지난 1년간 관세로부터 이제 안정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법원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를 시행하는 가운데 이는 미국 농업에 큰 타격을 주고 무역 흐름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 한마디로 계속 불안한 상태라는 것.
- 농부들의 불만은 앞으로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2026년 초 농업 종사자들의 심리가 불안하고, 전직 농업 지도자들은 현재 무역 정책이 지속적인 피해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사

[오일]

YahooFinance: Oil prices surge to cross \$80 after US-Iran conflict engulfs Middle East and Strait of Hormuz

중동 및 호르무즈 사태로 오일, 80불 돌파

-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확대되면서 유가가 급등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관련 군사 활동으로 에너지 공급이 차질을 빚고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브렌트유 가격은 일시적으로 배럴당 82불 이상까지 올랐다가 현재 70대불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73달러로 강세를 보인다.
- 이번 급등은 세계 원유 공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전략적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 차질 때문이다. 분쟁으로 인한 유조선 피해와 전쟁 위험 보험료 상승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다.

- 전문가들은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해협이 차단되거나 공급 차질이 지속될 경우 배럴당 90~100달러까지 상승하리라는 것.
- 에너지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쳐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했다.

Oil Jumps Most in Four Years



Source: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WSJ: South Korea's Exports Grew 29% Year-on-Year in February 2월 한국 수출 규모 전년 대비 29% 상승

- 아시아에서 4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한국의 2월 수출은 지난해 동월에 비해 29%가 늘어난 6백7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1월에는 전년도 동월 대비 34% 급증했다.
- 특히 반도체가 수출을 주도했는데 수출이 2배 증가한 2백5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 반면에 2월 수입은 7.5% 증가한 5백19억 4천만 달러로 나타나 교역 흑자액은 1백5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기사

[인공지능]

CNNBusiness: AI is gobbling up the world's memory chips, sending smartphone prices to record highs, report says AI로 메모리 수요 급증하면서 스마트폰 크게 올라

-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 관련 시스템과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DRAM과 HBM)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 칩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 이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 비용이 크게 올라, 올해 트폰 평균 판매 가격이 약 14% 상승해 역대 최고인 약 \$52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공급 제약 때문에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들고 있어, 2026년에는 지난 10년 중 감소 폭이 가장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PC·가전 분야도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기사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